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성탄축하행사 : 교회학교가 준비하는 성탄 축하 행사가 오늘 오후 1:30에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성탄절 예배 : 성탄절 예배가 25일(금)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세례입교식 : 성탄절 세례입교식이 25일 금요일 오후 1:30에 있습니다. 세례입교자는 이영욱 장은주, 유아세례자는 김서연(김지호 전해리) 박한얼(박대웅 강지영) 정예빈(정영우 김지윤) 황진주(황재모 강지선)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 2015년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내년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앙실천 :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 그들이 혼자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1부	삼상 2:18-20 / 시 148	2부	
예배	골 3:12-17 / 눅 2:41-52	예배	시 96:1-13

오늘 식당 봉사 : 강순배 국지연 서안나 류형민 이용석 강경화 성귀옥 이민범
 다음 주 식당봉사 : 박영신 조순덕 허명선 김정미 이은경 전정현 김정주 김종락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유아유치부 교사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대림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
 탄절과 연말을 앞두고도 고요한 반성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뭔가
 에 떠밀리듯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허황된 빛
 을 좇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빛을 보고 살
 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매정하고 냉혹한 이 사회를 꾸짖어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울
 부짖는 이들이 많지만 애써 외면하고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외면
 하는 것이 주님을 외면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60:1,2 인도자
- ♣ 교 독 문 118. 구주 강림(4)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대표기도 한완식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105.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 함께
- ♣ 성경봉독 I. 미5:2-5a 히10:5-10 눅1:46b-55 김동호 선생
 II. 마 7:13,14 김재환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평화의 시간이 오네 참빛찬양대
- 말 씬 I. 마리아의 찬가 신진식전도사
 II. 작은 문 만들기 김재흥 목 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경	고숙이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김남종	오복선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인석	이선화	김정민	이혜령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혜영 ^a
김혜진	김희진	박홍재	박미연	박병구	박인혁	박창운	허정운	서정순	송인선
오수현	윤미경	윤수진	윤순우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광석	이경희	이미휘
이봉옥	이부곤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주영	오재영	장동훈	정은선
정영례	조관행	홍선희	조항범	오현정	조हन권	박아영	최재욱	이수정	최진선
최영은	최철수	곽관희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황지현	무명		

감사헌금

강금분	김성한	조영순	김승욱	진혜정	김재흥	최희영	김정진	김혜정	김태정
김해선	문금석	박규석	박경선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박준영	최이랑
안정준	정복순	최금순	한성건	정지혜	한완식	임정자	무명14		

녹색꿈헌금

박순섭 권미숙 임자현 무명3

생일감사헌금

박성실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연합속회	방학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관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심해어

세상은 어지러웠다
 어제의 친구가 적으로 표변하여
 버린 칼을 겨누고
 베는 세태가 무서웠다
 세상을 등지는 게
 살길로 보였다

눈 감고 귀 막은 채
 숨어 살지만
 누군가에게는 빛으로 발광(發光)한다
 어둠 속에서 몸을 환하게 밝히는
 저 은둔 군자들!

- 장석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449. 예수 따라가며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넓지만 멸망으로 이어진 길을 가지 마십시오. 좁아도 생명으로 연결된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절망의 벽에 희망의 문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함께: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좁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이가 적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끝내 이 길을 가겠습니다. 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벽 사이로 생명에 이르는 문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성탄 축하 행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리봄 선생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김홍기 집사

12월	영접위원	한완식 송형운 추헌영 하미림 박진숙
	헌금위원	윤석철 김혜정

▣ 믿음으로 읽는 글

거룩한 양초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록소록 ... 온 누리가 두툼한 흰빛 외투를 입고 있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의 망망대해, 간간이 눈길이 미치는 시커먼 형상은 전나무들 - 열대 지방 출신인 나에게서는 물론 엄청난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이면 내가 고향을 떠나 첫 번 맞는 성탄절이 될 것이었다. 우울과 향수가 뒤섞임을 나는 느꼈다. 동시에 기대와 내적 명량성이 갈마드는 기분도 있었다. 이런 느낌이 영하 22도라는 혹한의 겨울 날씨로 더욱 심화되는 것이었다. 곳은 남독일 소도시 베르히테스가덴. 멋들어진 바이에른 지방의 경치를 지닌 고장의 하나다. ...

도심지에 자리한 조그만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은 잔뜩 찌푸린 잿빛 하늘 아래서 하얀 눈 더미 속에 파묻혀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하오 내내 나는 산보용 단장을 하나 쥐고 질척거리는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곳 관습에 따라 집집마다 창틀에 등불들이 타고 있었다. ...

하오 늦게는 많은 고백을 들었다. 이 무렵 이 부근 높은 산에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온 프랑스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다. 분명히 그들은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 신부들은 우리들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할 겨를이 거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성탄절 준비를 도와주는 동안 우리들 자신은 성탄절을 제대로 경축할 시간을 좀처럼 내지 못하는 것이다. ...

밤이 이슬하여 열한 시쯤 요란한 축포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사방에서 불빛들이 번쩍이며 희다 못해 파르스름한 눈 위로 쏟아졌다. 자정 미사를 드리러 산에서 내려온 두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소와 나귀들 사이에서 웃음 지으며 누워 계신 예수 아기에게 자기들의 다정한 호의를 표시하는 형식이었다. 자정 미사는 참으로 멋졌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가죽 바지와 두툼한 긴양말과 더욱 묵직한 신발들로 차려 입은 농부들이 전형적인 바이에른 지방 노래 가락들을 부르고 약기도 연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들레헴 목동들과 같은 기분

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 끝나자 깊은 고요가 온 누리를 덮었다. 골짜골짜에서 작은 등불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

새벽 한 시 반쯤 수도원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두터운 잿빛 두루마기를 입은 한 할머니가 손에 등불을 들고 문 앞에서 있었다. 가지고 온 조그만 꾸러미 하나를 내밀면서 할머니가 말했다 : “자정 미사 때 나오셨던 그 외국 신부님께 드리려고요.” 내가 불리어갔다. 할머니는 예쁘게 싸 꾸러미를 나에게 건네어 주면서 몇 마디 덧붙인다 : “신부님은 오늘 고향집 식구들을 멀리 떠나 계시지요. 이걸 신부님께 드리는 조그만 선물이랍니다. 신부님에게도 오늘은 성탄절이라야 아니까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쥐어 주고 나서 눈으로 축복받은 밤속으로 사라졌다.

고향의 성탄절 모습들이 갖가지로 머리를 스쳐 가는 동안 - 물론 눈이 없는 것만 빼고는 여기나 거기나 매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 나는 혼자 방에 앉아서 그 조그만 꾸러미를 풀었다. 꾸러미 속에서 나온 것은 세로로 내리 무늬를 새긴 큼직한 진홍색 양초 한 자루와 튼튼한 쇠불이 촛대 하나였다. 쓸쓸한 밤 속에서 한 불빛이 당겨졌다. 기다란 그림자가 맞은편 벽에서 춤을 추었다. 문득 쓸쓸한 느낌이 가셔졌다. 고향을 멀리 두고서, 성탄절마다 일어나는 기적, 만인이 형제애의 잔치를 거행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누군가가 그리스도 아기의 메시지를 이해한 것이다 : 예수님이 낯선 이로 이웃을, 이방인으로 형제를 삼으셨음을.

그러구러 여러 해가 지난 오늘도 책꽂이의 한 널판 위에서 그 때 그 성탄절 양초가 성탄 성야를 밝힌다. 해마다 거룩한 밤이 되면 그 양초가 탄다 - 또 언제나 그럴 것이다. 타면서 그 양초는 백설과 고독 속의 한 행복한 밤을 상기시킨다. 동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몸짓을 내 안에 일깨운다. 주는 물건 이상으로 선물하는 것을 깨우쳐 준다. 사람다움과 하느님다움이 뜻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지닌 성탄절을 현존하게 한다. 나에게서는 다른 어느 양초라도, 아무리 예술적으로 잘 만든 양초라 하더라도 나의 성탄 양초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

- 레오나르도 보프, 「성사란 무엇인가」 (분도출판사) 중에서